

1. 악인과 착한 사람에 대한 국민 인식

최근 빈센조(tvN), 모범택시(SBS) 등의 TV드라마가 인기가 높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악인 또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따른 국민 비난과 분노 감정 등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중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데에 대해 사법계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데, 이에 우리 국민의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가 있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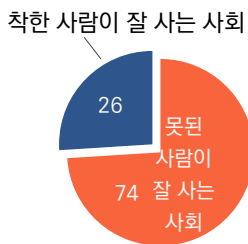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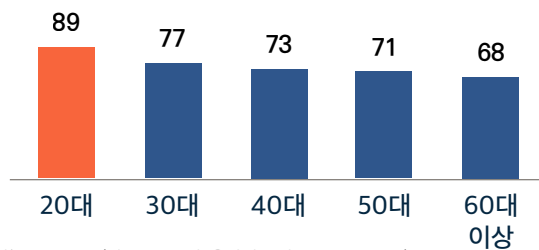
우리 국민 4명 중 3명, 우리 사회는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다!'

- 우리 국민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사회가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인지,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인지 질문하였다.
- 그 결과, 국민의 74%는 우리 사회가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라고 응답한 반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에는 26%만 응답했다.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오히려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못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라는 인식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라는 인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20대 연령층의 경우 89%의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평소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림]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다' '그렇다' 응답률(연령별)



*자료 출처 : 케이스탯코리아, '사회적 보상/처벌'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 2021.4.29.(전국 1,093명, 온라인 조사, 2021.4.9.-11)

● '우리 사회는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사회다' 40%

-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규칙 중 하나가 공동체에 기여한 사람은 '보상'을 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은 '처벌'을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공동체에 기여한 사람과 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보았다.
- 그 결과 공동체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사회' 56%, '인정하지 않는 사회' 44%로 나타나, 공동체 기여자에 대해 인정하는 사회 인식이 높으나, 10명 중 4명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고 응답해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번에는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 사회의 대응을 물어보았는데, '비난하는 사회' 60%, '비난하지 않는 사회' 40%로 비난하는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는데, 공동체에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불신감이 10명 중 4명이나 되었다.

[그림] 공동체 기여자와 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



*자료 출처 : 케이스탯코리아, '사회적 보상/처벌'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 2021.4.29.(전국 1,093명, 온라인 조사, 2021.4.9.-11)